



미 증시, ASML 실적 부진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17 일(수) 미국 증시는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WTI 유가(-2.9%) 하락, 20 년물 입찰 호조 등에 따른 금리 하락에도, ASML(-7.1%) 실적 부진으로 인한 엔비디아(-3.9%), 마이크론(-4.5%) 등 반도체주의 동반 약세 여파로 하락 마감(다우 -0.1%, S&P500 -0.6%, 나스닥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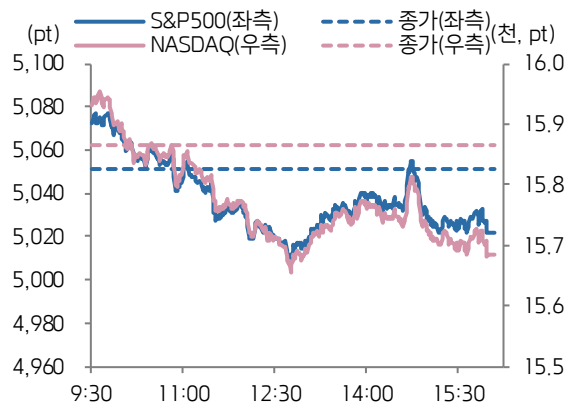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유틸리티(+2.1%), 필수소비재(+0.5%), 소재(+0.2%) 등이 강세, 기술(-1.7%), 부동산(-0.8%), 경기소비재(-0.6%) 등이 약세.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7.1%)은 1 분기 매출 및 순이익이 각각 -27%(YoY), -40%(YoY)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수출 제한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급락. 이 영향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3% 하락.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백악관 측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보조금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기 확장 속도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 상승으로 소비가 약화됐다고 밝힘. 영국의 3 월 헤드라인 CPI 는 3.2%(YoY)로 전월(3.4%)에 비해 하락했으나, 컨센(3.1%)을 상회. 코어 CPI 도 4.2%(YoY)로 전월(4.5%)에 비해 내려왔지만, 컨센(4.1%)은 상회. 반면, 유로존의 3 월 헤드라인 CPI 는 2.4%(YoY)로 전월(2.6%)에 비해 둔화됐으며, 컨센(2.4%)에 부합. 코어 CPI 도 2.9%(YoY)로 전월(3.1%)보다 하락했으며, 컨센(2.9%)에도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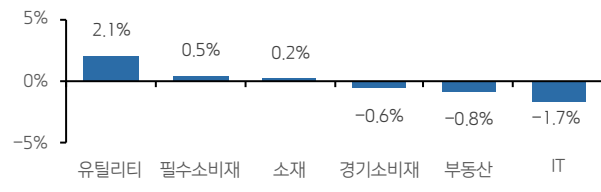
한, 미, 일 재무장관은 재무장관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엔화,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의 환율이 시장 펀더멘털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떨어졌다면서, 이를 안정시킬 자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스텔스 순이치 일본재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급격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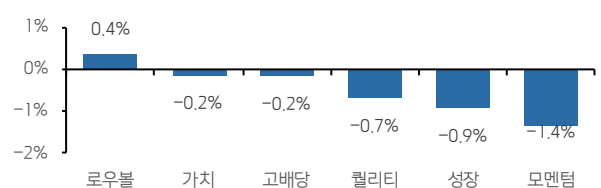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84.18	-0.98%	USD/KRW	1,386.79	-0.57%
코스피 200	352.79	-1.09%	달러 지수	105.94	-0.3%
코스닥	833.03	+0.03%	EUR/USD	1.07	+0.02%
코스닥 150	1,366.80	-0.89%	USD/CNH	7.24	+0%
S&P500	5,022.21	-0.58%	USD/JPY	154.31	-0.05%
NASDAQ	15,683.37	-1.15%	채권시장		
다우	37,753.31	-0.12%	국고채 3년	3.465	-0.5bp
VIX	18.21	-1.03%	국고채 10년	3.625	-0.2bp
러셀 2000	1,947.95	-0.99%	미국 국채 2년	4.932	-5.5bp
필라. 반도체	4,567.31	-3.25%	미국 국채 10년	4.587	-8bp
다우 운송	14,986.55	-1.7%	미국 국채 30년	4.700	-6.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14.13	-0.06%	WTI	82.69	-3.13%
MSCI 전세계 지수	749.14	-0.41%	브렌트유	87.29	-3.03%
MSCI DM 지수	3,281.11	-0.49%	금	2388.4	-0.81%
MSCI EM 지수	1,012.46	+0.26%	은	28.4	+0.08%
MSCI 한국 ETF	60.88	-0.67%	구리	433.95	+0.8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0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7.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중 전해지는 이스라엘-이란 전쟁 관련 뉴스플로우 2. ASML 실적 부진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주 조정 가능성 3.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 순매수 기조 유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 분기 랠리를 이끌었던 연내 3 회 금리인하 기대, 반도체 업황 회복의 전제가 약화되며 기술주 차익실현.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를 헤지하기 위한 금속, 에너지 부문 강세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 그러나 이란산 석유 추가 제재 현실화에 따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며 우회로 시장에 유입. 또한 전일 미 국무부는 6 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 제재를 재개했다는 점을 감안시 물가 우려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은 낮음.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 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트럼프 재임기인 18년 3 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하며 미중 무역분쟁 발발, 당시에도 물가상승 우려 존재했으나 영향은 제한적. 트럼프 뉴욕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유세과정에서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공약에 따른 변동성 확대 예상.

전일 베이징에서 미국 경제가 지난 2 월 말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slight) 내지 다소 완만(modest)한 성장세'가 이어진 지역은 이전 8 개 지역에서 10 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는 점은 연준의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다만 고용에 대해서는 최근 연간 임금상승률은 과거 평균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임금 부문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 유지. 다음주 초까지 조정 이어질 수 있으나, 빅테크 실적 기대, 실적 부진 및 약세 반영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반등 가능성 등 기업 모멘텀 감안시 위험선호 심리 재차 유입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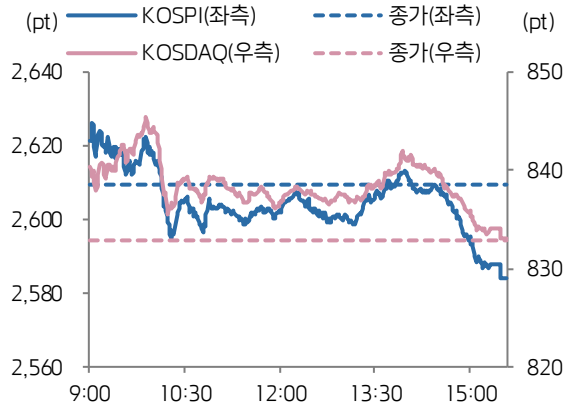
17 일(수) 국내증시는 원달러 환율 하락 및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미국과 유럽의 대이란 제재 착수 소식 및 ASML 1 분기 순이익 예상치 하회 발표에 2,600 선 하회하며 마감 (KOSPI -0.98%, KOSDAQ +0.03%)

금일에는 미 증시 기술주 약세, 반도체 투자심리 약화가 하방압력을 가하겠으나, 원달러 환율 추가 안정에 힘입어 2,600 선에서 반등 시도할 전망.

코스피는 4 월 들어 지난 3 월 중순 고점 대비 6% 하락. 선행 PER 9.7 배로 과매도 구간 초입이며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하나 물가 재상승 우려 및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우려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 특히 2,600 선이 심리적 하단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금일 조정 강도가 중요. PBR 은 0.88 배로 저 PBR 랠리 이전 수준으로 회귀.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화된 동시에 저 PBR 주의 하단 지지력 역시 약화. 전일 자산총액 2 조 원 이상 중견 기업 대상 간담회에서 공시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조하겠다고 언급.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강제성 약화 우려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 정책 속도의 문제일뿐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및 저가매수 전략 유효하나 5 월 2 차 세미나 이전까지 모멘텀 부재하므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익실현 불가피. 현재 야당이 추진한 것으로 예상되는 횡재세 징수(작년 11 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 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반대 등이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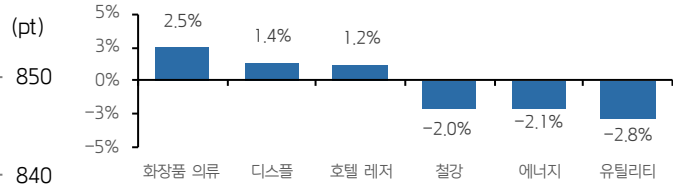
환율은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11 원 가까이 급락하며 1380 원대까지 하락한 점은 긍정적. 그럼에도 한달간 1330 원대에서 1400 원까지 단기 급등한 만큼 자동차 및 부품, 전력기기, 방산, 건설기계, 미용기기, 화장품, 음식료 등 수출주로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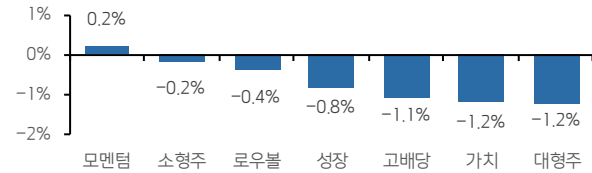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